

영암군 영암읍 “재난생활비, 전화한 통만 주세요”

오늘까지 취약계층 재난생활비 방문신청 서비스

영암군 재난생활비 영암읍 지급율 94.8% 달성

영암군 영암읍은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마을담당직원과 마을이장이 협업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재난생활비 서비스를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는 두 방

식 모두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가가호호 방문(철저한 방역수칙 엄수) 재난생활비 신청 및 수령까지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원스톱(one-stop)서비스(신청, 수령증발행, 상품권 수령-읍사무소)를 실시하여 8. 27 일기준으로 총 7,821명, 94.8%를 달

성한 영암읍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재난생활비를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아울러 코로나 19로 지친 취약계층 안부살피기를 실시하는 등 선진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영암읍 관계자는 “마을이장과 직원들 간 협업으로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화된 코로나 19에 지친 군민의 재난생활비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구례군, 수해피해 주민재난심리 회복지원

구례군은 수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재난심리 회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경험자들이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려면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외상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7일부터 수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하여

심리지원을 홍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이 심한 주민은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구례군은 재난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활용하여 초기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심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회복단계까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 연계를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정서적 심리안정에 힘쓰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함평군, 호우피해 이재민에 재난지원금 ‘선(先)지급’

내달 초부터 긴급지원키로

함평군이 지난 24일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장기구호비를 지급한 데 이어 내달 초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선(先)지급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27일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지역 수재민에 오는 9월 초부터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향후 국비지원이 예정되었지만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일단 군이 보유한 예비비 26억

6천만 원을 우선 투입해 재난지원금(민간)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총당할 방침이다.

국비 배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사용한 예산만큼 나중에 국비로 보전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다.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함평을 포함한 남부지역 11개 지자체가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의 복구비 등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조치다.

지급대상 역시 자연재난으로 각종 인명피해와 주택 침수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한해 지급된다.

군이 지금까지 집계한 피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과 5건, 침수 131건 등 총 136건이다. 주택 전과 수재민에게는 1천 600만 원,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본 수재민에게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다행히 이번 수해로 인한 함평지역 내 사망·실종·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2020년 복지사업 추진 논의

무안군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함경훈, 이수용)는 지난 26일 일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물품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여 건강더하기 밀만찬 지원사업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일축하행복상자 전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로 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